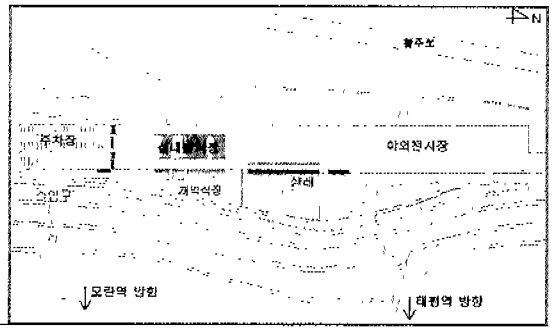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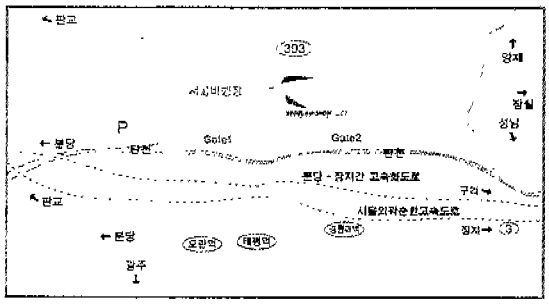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동북아 최대의 항공엑스포로 열리게 될 서울에어쇼 2001이 개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참가 업체 및 항공기가 확정되었으며, 시범비행 일정 및 행사기간중 열리게 될 각종 이벤트들의 일정들도 확정되어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16개국 200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항공기 생산업체를 비롯하여 항공전자, 항법 및 통신, 항공무장, 방공무기 등의 항공산업체와 관련단체, 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상무기 관련 산업체들까지 참가하여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1'이라는 원래의 명칭에 걸맞는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항공기의 전시와 시범비행은 총 5개국에서 6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고 특히 F-X 대상기종인 Su-35, 라팔, F-15E 등 첨단 전투기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일 예정이며 '98년 서울에어쇼에서 화려한 기동으로 관람객들의 환호와 갈채를 모았던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팀이 이번 행사에서도 고난이도의 새롭고 섬세한 기동을 통해 곡예비행의 진수를 펼쳐보일 예정이다.
지상전시장에는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기를 비롯하여 국내외 5개국 60여대의 항공기 및 지상 무기들이 전시되어 세계 무기체계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며 행사기간중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행사내용을 더욱 알차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Seoul Airshow 2001 Guide

서울에어쇼 2001은 총면적 3만여평에 달하는 방대한 공간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관람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다. 가장 효과적인 관람방법은 남문인 입구(Gate 1)로 들어와 실내전시동을 관람하고 북쪽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전시장에서 한국 공군 항공기부터 시작하여 세계 최신예 각종 항공기를 둘아본다. 실내외전시장 관람이 끝나면 오전 및 오후에 펼쳐지는 시범 및 곡예비행을 관람한 후 북문인 출구(Gate 2)로 나가는 것(혹은 역순으로 관람)이 광대한 전시장을 짧은 시간안에 관람하는 요령일 것이다.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수서역→분당선 태평역 또는 모란역 하차 2호선 잠실역→8호선 모란역 하차 도보로 행사장까지 10여분 소요
● 버스	일반버스: 잠실역→수서역→여수대교 (861번) 잠실역→경원대→ 태평역 (570번, 570-2번) 강남터미널→양재역→ 태평역 (36번) 신사역→양재역→태평역 (66번) 압구정→양재역→태평역 (239-1번) 동대문구청→잠실역→모란역 (906번) 좌석버스: 강남역→양재역→여수대교 (910번) 광화문→강남터미널→강남역→양재역→여수대교 (1005번) 남부터미널→양재역→여수대교 (1500번, 1500-1번) 영등포시장→강남역→양재역→여수대교 (736-1번) 강남→양재역→태평역 (916번, 917번, 917-1번) Business Days: 지하철 모란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영 (배차간격: 10~15분) Public Days: 지하철 태평역, 모란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영 (배차간격: 15분)
● 자가차량 이용	고속도로: 판교인터체인지→진입 여수교 앞 사거리 국도: 서울→시흥사거리→여수교 앞 사거리

관람시간

서울에어쇼 2001은 Business Days(10월 15일~10월 18일)와 Public Days(10월 19일~10월 21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동과 3만여평의 실외공간을 모두 관람하는데 약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입장권

Business Days와 Public Days는 행사장내에서의 혼잡을 피하고 항공사업 관계자의 원만한 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분하였다. Business Days에는 18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료는 15,000원이며, 30인 이상의 단체는 12,0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Public Days에는 18세 이상 어른은 7,000원, 만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소인은 4,000원이며, 30인 이상 단체는 각각 6,000원, 3000원으로 할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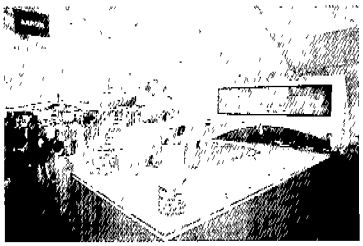
입장권은 서울은행 본점 및 전국지점에서 10월 20일(토)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매(www.interpark.com/www. ticketpark.com)와 전화예매(1588-1555)도 가능하다. 이외 교보문고, SK주유소, 우체국 등의 지정예매처에서도 예매가능하다. 또 행사기간 동안에 행사장에서는 행사장내 게이트 1, 2의 매표소 2개 장소, 23개 창구에서 입장권이 판매된다.

관람포인트

◆ 개막식

10월 15일 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명예대회장인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서울에어쇼 2001 개막을 선포하고 축하한다. 이 개막식에는 해외 주요 국가의 국방 및 통상관계 외빈, 해외 각국 참모총장, 주한 외교사절, 주한 외국군 장성, 관련 학계인사 및 전시참가 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도 참석한다. 개막식에 이어서 실내전시장, 실외전시장 관람이 끝나면 블랙이글의 곡예비행과 각종 항공기들의 시범비행으로 개막식을 축하하게 된다.

◆ 실내전시장



실내전시장은 3개의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홀은 인접 국가별로 구분되어진다. 홀 A에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국가관을 구성하며 유럽 및 아시아의 중소업체들이 배치된다.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국가관을 구성할 대표적인 업체로는 BAE 시스템즈, 알레니아, 스네크마, GIFAS, 마트라 BAE 다이나믹스, 라팔 인터내셔널,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IAI, IMI, 라파엘사 등이 참가한다.

3개의 홀중 규모가 가장 큰 홀 B는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다. 벨 헬리콥터, 레이디온, GE 항공기 엔진, 록히드 마틴, UTC, 노드롭 그라만, 보잉사 등의 미국 업체와 에어버스, EADS, 유러파이터, 탈레스 등의 유럽 업체들이 참가한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위아(WI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로스트왁스공업,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아시아나항공 등의 한국 업체들이 홀 B에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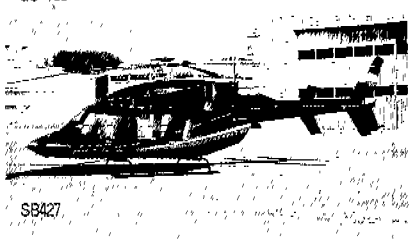
홀 C는 수호이, 카잔헬리콥터, 로스아발룬엑스포르트 등의 러시아 업체들로 러시아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공군, LG상사, 한화, 연합정밀, 캐스텍, 하이테크 미디어, 항공대, 한서대, 인하대, 건국대 등의 한국 업체와 교육기관들로 구성된다.

세계 16개국 200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관련 업체 및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6년, '98년에 이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업체들은 자사제품 전시 및 홍보활동을 벌이는데 이를 통해 각 나라별 항공산업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람객들은 홀 A, B, C순이나 그 역순으로 관람하는 것이 좋겠다.

◆ 실외전시

실내전시장을 둘러본 뒤에는 실외전시장으로 이동해 40개 기종 50여대의 항공기가 전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항공기 이외에도 지상·해상 무기체계도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BO-105



SB427

전시항공기중 미국의 F-15E,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Su-35 등 각국의 최신예 전투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21세기 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 후보기종의 면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를 이 기회에 모두 살펴볼 수 있으며 국산훈련기 KT-1과 국내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실물크기 목업)을 살

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전시되는 각종 항공무장을 통해 공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주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위성 발사체를 비롯한 인공위성 관련 분야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흔치 않은 기회이니 만큼 전시된 항공기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우미나 조종사들에게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에어쇼 관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 시범 및 곡예비행

에어쇼에서 시범 및 곡예비행은 놓쳐서는 안되는 에어쇼의 진수이다.

한국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대상기종들이 하늘과 지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에어쇼에서 F-15E, 라팔, Su-35 등 세계 최신예 항공기의 시범비행은 항공전력과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3개의 F-X 대상 후보기종은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사 기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기동을 선보이며 시범비행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이글의 환상적인 곡예비행

또한 한국 공군의 곡예비행팀인 블랙이글은 이번 에어쇼를 통해 고난이도의 새롭고 섬세한 기동의 곡예비행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며 '98년 서울에어쇼의 환호와 갈채를 다시 한번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대비행과 단독비행으로 이루어지는 곡예비행은 일종의 연기와 같아서 적절한 시간차이를 두고 연속적으로 기동이 이루어진다. 묘기와 묘기 사이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시범 및 곡예비행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 때문에 관람객들은 미리 시간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Business Days 기간동안에는 오후 14시에서 15시까지 매일 1회의 시범 및 곡예비행이 있고, Public Days에는 금요일(10월 19일)은 14시에서 15시 30분까지 1회가 실시되고 주말(10월 20일~21일)에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오후 15시에서 16시 30분으로 2회 운영된다.

시범비행 및 곡예비행에는 F-15E, 라팔, Su-35, 블랙이글의 A-37 항공기 이외에도 KF-16, KT-1, BO-105, SB427, B 206, 글라이더, CH-701, AH-64, BE-200, C-750, F-16C, AS-365, Ka-32T 등이 참가한다.

Business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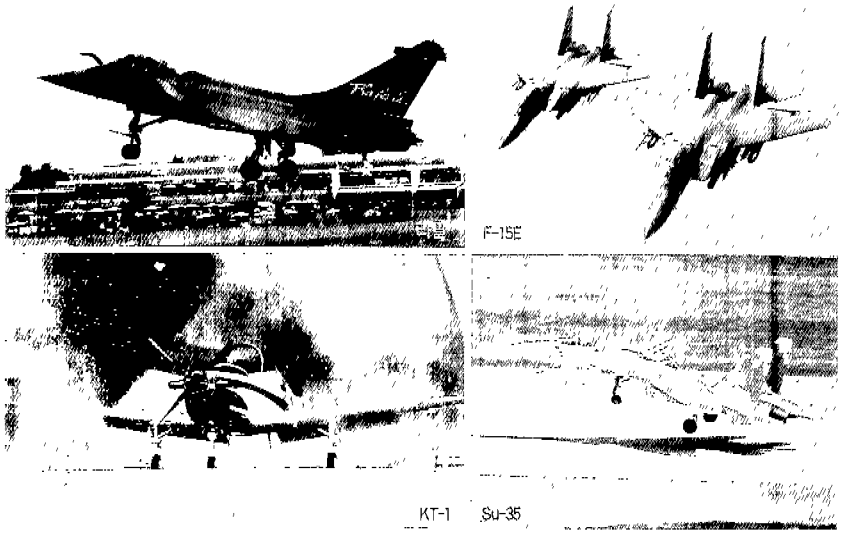
일자 : 01. 10. 15(월)~10. 18(목)
시범/곡예비행: KT-1, F-15E, F-16, 라팔, Su-35, 블랙이글 등
시간: 14:00~15:00
오후 1회 운영

Public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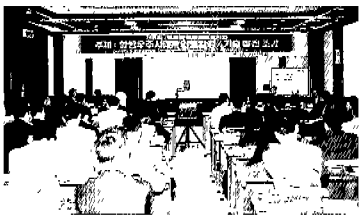
일자: 01. 10. 19(금)~10. 21(일)
시범/곡예비행: KT-1, F-15E, F-16, 라팔, Su-35, 블랙이글 등
금요일 1회 운영: 14:00~15:30
주말 2회 운영: 11:00~12:00, 15:00~16:30

해외 참가기종	
미국	F-16C, A-10, C-750
	F-15E, AH-64
프랑스	라팔
러시아	Su-35, BE-200, IL-76

국내 참가기종	
공군	KF-16, F-16, F-4E, F-4D, F-5A, F-5E, A-37, RF-4C, RF-5A, KT-1, T-59, T-38, T-37, T-41, C-130, CN-235, C-400, HH-47, O-2
육군	BO-105, AH-1
KAI	SB427, XKO-1
경찰청	B 206, Mi-172
항공대	C-172, 무니, 글라이더
서전 ILS	SJA-P1
알파항공	CH-701
한국비행선	비행선
대한항공	UH-60
산림청	Ka-32T
소방항공대	AS-365


F-15E
KT-1
Su-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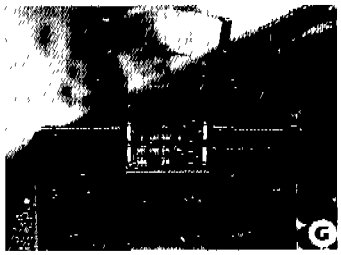
◆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서울에어쇼 2001 기간중인 10월 16일과 10월 17일 양일간에는 '21세기 항공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 을 주제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이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공군사관학교와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무기체계실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심포지엄은 21세기의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한 항공우주정책 및 전략, 항공우주력 및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민·관·군의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분과 '자주국방을 위한 항공우주산업정책 발전방향', 제2분과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공군의 과제', 제3분과 '항공우주무기체계 개발과 공군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진다.

◆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Public Day 기간중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전국대회인 '서울에어쇼 2001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도 관람코스에 빠뜨리지 말고 챙겨 넣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휴렛 팩커드 등 세계 유수의 컴퓨터 업체의 후원아래 전국 각지에서 모인 비행시뮬레이션 매니아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연대회는 국내 비행시뮬레이션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비행시뮬레이션대회인 '서울에어쇼 2001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는 9월 2일 부산 예선을 시작으로, 9일 광주, 16일 대구 예선을 마치고 에어쇼의 Press Day인 10월 13일에는 에어쇼 행사장에서 서울지역 예선 참가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예선을 실시한다. 본선대회는 10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전국 각 지역의 사이버 조종사들은 본선 당일 열띤 경쟁을 벌여 전투기 부문에서는 탑건, 민항기 부문에서는 최우수 조종사가 탄생한다. 전투기 부문의 대회과목은 F-16(Falcon 4.0) 2:2 공대공 전술기동이며 민항기 부문(FS2000)의 대회과목은 세스나 182S기로 외국기지 접근착륙 수행으로 평가하게 된다.

각 부문 입상자들에게는 사이버 면장수여, 항공생리 체험, 실제 시뮬레이터 탑승 등 다채로운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편의시설

◆ 식당

식당은 프라자 호텔 외식사업부에서 운영하는 양식당(뷔페식)과 한식당이 운영된다. 양식당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한식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다양한 간이음식점이 있으며 4,000~10,000원 상당의 스낵류, 과자, 음료수 등이 판매된다.

◆ 기타 부대시설

행사장 곳곳에는 21개의 가두판매대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액세서리, 완구류, 의류, 문구류, 서적 등 각종 행사관련 기념품을 판매한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환전, 자동차 렌탈 등을 수행하는 비즈니스센터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미아보호소, 분실물 보관센터, 임시파출소, 의무실 등이 운영된다.

유의사항

서울에어쇼 2001은 전세계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참석하는 만큼 관람예절도 국제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결한 행사장 조성과 질서있는 관람태도,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 등은 서울에어쇼를 더욱 빛내줄 것이다.

Business Days인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18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다. 또한 우천시 시범비행은 취소되며, 입장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특히 시범 및 곡예비행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을 유념해 관람을 해야 한다. Public Days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관람하는데 수월할 것이다.